

B급 요원들의 통쾌하고 짜릿한 반란

SBS 월화드라마 굿캐스팅

근심·걱정·우울
한 방에 날린다!

새 월화드라마 <굿캐스팅>이 4월 27일(월) 첫 방송된다.

<굿캐스팅>은 국정원 현직에서 밀려나 근근이 책상을 지키던 여성들이 어찌다 현장 요원으로 차출된 후 초유의 '위장 잠입 작전'을 펼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이드 액션 코미디 드라마다. 권총보다는 장바구니가, 고공 활강 액션보다는 등짝 스매싱이 어울리는 평범한 여자들이 가족을 구하고, 국민을 구하고, 나라까지 구하는 대활약을 해내며 시청자에게 재미를 넘어서 강렬한 대리만족과 극한의 쾌감을 선사한다.

<굿캐스팅>은 탄탄한 필력을 갖춘 박지하 작가와 <언니는 살아 있다>,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상류사회> 등을 연출한 최영훈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기대감을 키운다.

얼떨결에 국정원 비밀 요원으로 뽑혀 언더 커버 작전을 수행하는 미녀(?) 3총사는 최강희, 유인영, 김지영이 맡았다.

최강희는 업무 수행 능력치는 만렙이지만,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 탓에 성격은 최악이라 평가받는, '똥기 총만' 국정원 내 문제아 백찬미 역을 맡았다. 최강희는 화끈한 입담에 강렬한 액션을 선보이는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맹활약하며 카리스마 걸크러시 매력을 발산한다.

유인영은 뇌섹녀 면모에 어리바리한 허당미를 동시에 지닌 임예은 역을 맡았다. 두뇌 회전은 빠르지만 타고난 몸치, 음치인 탓에 천신만고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겁도 많고 소심하여 전혀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육아 전쟁에 시달리는 싱글맘이기도 하다.

김지영은 극악무도한 테러범은 참아도 갱년기 우울증은 못 참는 18년 차 현실 주부 황미순 역을 맡았다. 남편과 딸조차도 그녀가 보험 설계사인 줄 알 정도로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온 미순은 데스크 업무로 밀려난 지 11년 차에 백찬미, 임예은과 함께 아줌마 스파이 삼총사로 대활약하게 된다.

이상엽은 일광하이텍 대표이사인 윤석호 역을 맡았다. 석호는 엄청난 집안에 학벌까지 끝내주는 매너남이지만, 어릴 때부터 차기 경영자 수업을 받느라 연애에 대해 한이 많은 인물이다. 10대 시절 첫사랑이자 짝사랑의 주인공과 똑 닮은 비밀 요원 백장미(백찬미)와 재회한 뒤로는 끊임없이 곁을 맴돌며 의심하고 지켜본다.

이종혁은 1년 365일 국정원에서 먹고, 자고, 싸는 탓에 '국정원 죽돌이'라 불리는 국정원 산업보안팀 팀장 동관수 역을 맡았다. 관수는 국정원 인생 최대 언더 커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걸핏하면 하극상을 일삼는 돌아이 요원 백찬미, 현장 일엔

감감이인 화이트 요원 임예은, 악연으로 엮인 입사 동기 황미순이 모인 자타 공인 '오합지졸 마이너 팀' 수장으로 이들을 이끌게 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B급 요원들의 좌충우돌, 요절복통 현장 잠입기 <굿캐스팅>은 코로나 시대, 근심·걱정·우울함을 한 방에 날려줄 것이다.



아침연속극 *엄마가 바람났다* 5월 4일(월) 첫 방송

부자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한 깜찍한 가족확장 프로젝트



새 아침연속극 <엄마가 바람났다>가 5월 4일(월) 첫 방송된다. <엄마가 바람났다>(극본: 안서정, 연출: 고희식)는 결혼이라면 치를 떨던 싱글맘이 재력이 아빠를 원하는 자식들을 위해 돈 많

은 남자랑 결혼하려는 좌충우돌 로맨스 가족극이다. 싱글맘 오필정 역은 가수 출신 현주니가 맡았다. 필정은 평범한 가정을 꿈꾸었고 그 꿈을 이뤄줄 남자와 결혼했으나, 오판이었다

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무능한 데다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남편이 죽자, 필정은 멋지고 돈 많은 아빠를 원하는 자식들을 위해 맞선 자리에 앉게 된다. 현주니는 그동안 <베토벤 바이러스>, <아이리스>, <태양의 후예>, 영화 <국가대표>, <반창고>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해 왔으나 주연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주니는 “처음으로 맡은 주연 드라마여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작품에 임하고 있다. 믿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침연속극의 황태자 이재항은 LX그룹 기획실 본부장 강석준 역을 맡았다. 석준은 남 보기에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형과 엄마에게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LX그룹 회장인 아버지에게 받은 임무를 수행하느

라 신분을 속이고 하숙생으로 들어간 집이 하필이면 악연으로 얽혀있는 오필정의 집. 천방지축 필정 가족과 결벽증을 가진 석준의 끔찍한 동거가 시작된다. 필정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이은주 역은 악역 전문 문보령이 맡았다. 은주는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필정이 자신의 새로운 목표물인 석준 주변에서 얼쩡거리자 날카롭게 발톱을 세운다. LX그룹의 이사이자 석준의 형인 강석환 역은 김형범이 맡았다. 자라는 내내 석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온 석환은 이제 LX그룹 후계자 자리를 두고 석준과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 아침연속극 불패신화를 이어갈 SBS의 <엄마가 바람났다>는 5월 4일(월) 아침 8시 35분에 첫 방송된다.

2020년 1분기 드라마 결산 - SBS, 적수 없는 채널 1위

전 드라마 선전하며 2049 시청률, 가구시청률, 시청자 수 싹쓸이

SBS 드라마가 2020년 1분기 2049 시청률과 가구시청률, 시청자 수에서 1위를 휩쓸며 3관왕을 차지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분기(1/1~3/31)에 지상파 및 tvN과 JTBC에서 방영된 25편의 드라마(주말, 아침, 단막 제외)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SBS가 2049 시청률 5.83%(이하 수도권 기준)를 기록하여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tvN이 3.44%, JTBC가 3.43%로 뒤를 이었고, KBS2는 1.81%, MBC 1.67%를 기록했다. 가구시청률 역시 SBS가 14.16%를 기록하여 2위와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JTBC(6.97%), 3위 MBC(6.70%), 4위 KBS2(6.15%), 5위 tvN(5.82%) 순이다. 시청자 수 역시 압도적이다. 1위인 SBS는 개인시청자 수 1,645,839명을 기록했으며 2위인 JTBC는 806,873명, 3위 tvN이 737,768명을 기록했다. 4위 KBS2는 633,172명, 5위 MBC는 435,860명이다. 이 같은 SBS 드라마의 활약은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차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메디컬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야구가 아닌 구단에서 벌어지는 뒷이야기를 그린 <스토브 리그>, 변호사들의 생존기를 담은 법정 드라마 <하이ENA>, ‘좋은 어른’에 대한 메시지를 묵직하게 던지는 미스터리 추격극 <아무도 모른다>에 이르기까지 1분기 SBS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넘나들며 화제를 모았다. 각박한 시대에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김사부, 백승수, 차영진 등의 캐릭터들은 시청자들을 열광시켰고 후속편 제작을 성원하게 하고 있다. 특히, <낭만닥터 김사부>는 1분기에 방송된 드라마 중에서

가구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3위 <스토브 리그>, 5위 <하이ENA>, 7위는 <아무도 모른다>가 차지하여 가구시청률 TOP 10 안에 SBS의 모든 드라마가 포함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스튜디오 S 출범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진 SBS 드라마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분기 드라마 2049 시청률(채널별)

	채널	시청률
1	SBS	5.83%
2	tvN	3.44%
3	JTBC	3.43%
4	KBS2	1.81%
5	MBC	1.67%

*주말, 아침, 단막극 제외

1분기 드라마 가구시청률(채널별)

	채널	시청률
1	SBS	14.16%
2	JTBC	6.97%
3	MBC	6.70%
4	KBS2	6.15%
5	tvN	5.82%

*주말, 아침, 단막극 제외

1분기 드라마 가구시청률(프로그램별)

	채널	시청률
1	SBS 월화 <낭만닥터 김사부 2>	18.96%
2	tvN 토일 <사랑의 불시착>(본)	15.37%
3	SBS 금토 <스토브리그>	15.19%
4	JTBC 금토 <이태원클라쓰>	12.74%
5	SBS 금토 <하이ENA>	10.58%
6	KBS2 수목 <99억의 여자>	9.05%
7	SBS 월화 <아무도 모른다>	8.84%
8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본)	8.72%
9	JTBC 금토 <부부의 세계>	8.65%
10	tvN 토일 <하이바이 마마>(본)	5.81%

SBS 창사 30주년, 올해의 SBS D 포럼(SDF) 주제는?



겪어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

The World We've Never Experienced : New Ways to Survive

SBS의 대표 사회공헌 지식 프로젝트인 'SBS D 포럼' (이하 SDF)이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의 바뀌는 세상에 대해 들여다본다.

2020년, 바이러스가 세계의 일상을 마비시켰다. 지난 10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유행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문명사적 전환까지 앞당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의 초입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 SDF는 다가올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생존의 조건'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올해 SDF 2020은 '겪어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권위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SDF는 10월말 포럼을 준비하는 동시에 연중 온라인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내외

의 다양한 생각과 시도, 실행의 이야기를 담은 그릇을 만들 계획이다.

또 물리적 거리두기의 상황이 나아지면 소규모 모임도 개최해 SDF를 사랑하는 팬들과 자문위원들이 직접 만나 토론하며 함께 SDF를 만들어가는 안도 계획 중이다. 올해 SDF는 2020년 10월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예정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힘들어질 경우 TV 프로그램 시리즈로 내용을 전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류 예능 이끈 <런닝맨> 500회 7월 10주년 특집 기약하며 조용한 자축



SBS 대표 간판 예능 <런닝맨>이 4월 26일(일) 500회를 맞는다. 2010년 7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런닝맨>은 10년간 쉽 없이 달려 왔다. 버라이어티 예능계에서 시즌제 아닌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무한도전>의 563회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자, 현존 버라이어티 예능 중에서는 최장 기록이다.

1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하하, 송지효, 이광수와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전소민, 양세찬 등 8인의 멤버들은 각기 다른 매력과 찰떡같은 팀워크로 프로그램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매주 멤버들에게 부여되는 미션과 멤버들의 기발한 두뇌 플레이는 <런닝맨> 인기의 또 다른 원동력이다.

<런닝맨>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런닝맨>을 공동 제작했거나 준비 중이다. 2016년에는 아시아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고 한류를 전파한 공으로 방송 프로그램 최초로 관광진흥 유공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다.

<런닝맨> 500회는 그간에 있었던 특집 회차들과 달리 사회적인 분위기와 멤버들의 부상 이슈, 그리고 곧 다가올 10주년 특집 등으로 인해 촬영의 규모와 화려함보다는 재미와 의미를 담았다.

<런닝맨>의 가족과도 같은 에이핑크의 보미, 초롱은 물론 청하, 러블리즈의 미주, 위키미키의 최유정이 게스트로 출연해 4월 13일(월)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재밌고 의미 있는 500회 촬영을 마쳤다. 이날 촬영장에는 SBS 박정훈 사장이 커피차를 보내 500회를 축하했다.

최보필 PD는 "말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런닝맨>의 오랜 팬이자 스태프의 한 명으로서 500회의 무거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500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재미와 더 높은 화제성을 이끌어 낼 변화와 구성을 준비 중이니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런닝맨> 500회는 4월 26일(일) 오후 5시에 방송된다.

WAVVE, 미국 NBCU와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초 협력체 결성

국내 최대 OTT(Over-the-top) '웨이브(WAVVE)'가 세계적인 미디어 회사 'NBC유니버설'과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초(超) 협력체'를 결성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합작사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VE)'는 지난 12일(일), 미국 NBC유니버설(NBCU)과 오리지널 콘텐츠 수출을 골자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NBCU는 세계적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 '컴캐스트'의 자회사로 TV 드라마, 영화, 스포츠 콘텐츠, 뉴스를 제작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매출은 약 340억 달러(약 41조 3,000억 원) 수준이다. 국내에도 익숙한 TV 시리즈 '디 오피스', 영화 '슈렉', '미니언즈' 등을 제작하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 등을 배급했다.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번 협력은 한류 콘텐츠 생태계를 넓히려는 웨이브와 최근 북미·유럽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NBCU의 이해가 맞아 성사됐다.

이번 협력으로 웨이브는 지상파 3사와 함께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3년간 최대 15개 NBC에 공급한다. NBCU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OTT 서비스 '피콕(Peacock)'을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웨이브의 한류 드라마 등이 이 서비스의 콘텐츠로 제공될 수 있다. 웨이브는 NBCU를 통한 콘텐츠 수출 등을 고려해 올해 총 600억 원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구 코로나 추재기 - 기침을 듣고 스케치북을 보라

- 보도국 탐사보도부 이슈취재팀 손형안

흔히 대구를 '고담 시티'라 부르지만, 범죄율만 따져 봐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대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다. 과거 도시를 지탱했던 주축 산업이 삽시간에 몰락하고, 반대급부로 소비문화가 비대하게 발전한 도시.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좁은 공동체. 내가 가진 대구의 이미지는 이렇게 다소 쓸쓸한 모습이다. 이곳에 그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퍼졌다. 혼란은 빠르게 도시 주변에 퍼져갔다. 길게 늘어선 마스크 구매 줄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31번 환자의 광폭 행보 여파로 확진 환자 수는 매일 급증했다. 필요 병상 수는 이 도시가 감당할 수 없었다. 의료진은 밤잠을 줄여가며 사투를 벌였다. 지난 2월 27일 이후, 대구에서 목격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쿨럭, 쿨럭". 탁하면서도 울림이 큰 기침 소리를 들은 건, 대구에서 경증 환자들을 위해 만든 생활치료센터 개소 이틀째였다. 취재를 한답시고 나는 이들이 머무는 숙식동에

서 멀지 않은 외곽 울타리 앞에 서 있었다. "코로나19의 (의심) 증상 → 기침과 발열, 호흡 곤란". 기사에서도 수차례 쓰고 읽어왔던 정보지만, 이 소리를 실감하곤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조차 알 수 없는 감염 경로, 기억 없는 격리 생활. 초조한 듯 연신 기침하며 창문 앞을 서성이는 환자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관찮으시냐고 물었고, 문제없다며 크게 손을 흔들던 방충망 너머의 대구 시민을 잊을 수 없다. 몽클한 장면 하나 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센터 첫 퇴원 환자가 나왔다. 어린아이와 부모였다. 구급차를 타고 퇴소하기 직전 생활치료센터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꼭 완치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작은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챙겨 가세요." 스케치북이 아이의 손에 쥐어졌던 걸로 기억한다. 노란 점퍼를 걸친 공무원과 수줍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환자 가족. 짧은 순간이나마 환대와 환대가 오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극복은 이 작은 현장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느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전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 동산병원 후문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안온함이 느껴지는 이 평범한 글귀 속으로 대구는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 이를 보며 대구 출장 마지막 밤을 보낼 땐, 날씨 탓인지 제법 착잡했다. 대구는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확진 환자 수가 '0'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뉴스로 접했다. 격랑의 시기를 잘 견뎌낸 대구 시민, 방역 당국의 노고가 끝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함께 취재 현장에 있었던 영상취재팀 이병주, 배문산, 김태훈. 이슈취재팀 권영인 선배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국내 최초 'PPL 버라이어티 예능'이 온다!



4월 25일(토) 첫 방송



파일럿 예능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이하 <텔레그나>)이 4월 25일(토)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매주 독특한 티저로 SNS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텔레그나>는 "PPL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색다른 상상력에서 출발한 국내 최초 '착한 PPL'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광고회사 CEO이기도 한 개그맨 유세운을 비롯해 양세형, 장도연 그리고 '첫 고정 예능'에 도전하는 송가인, 요즘 '예능 대세' 김동현, 김재환이 합류해 유

쾌한 PPL 대결을 펼친다.

<텔레그나> 멤버들은 개인전과 단체전 PPL 대결을 펼치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과 PPL 상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더불어 홍보가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맞이한 지자체 등을 위한 PPL도 도전해 선한 영향력을 녹여내겠다는 각오다. <텔레그나>는 4월 25일과 5월 2일(토), 2회에 걸쳐 방송된다.

뉴욕페스티벌, 휴스턴페스티벌 수상 낭보



2020 뉴욕페스티벌 TV&필름 어워즈에서 <녹두꽃>(연출: 신경수, 극본: 정현민)이 미니시리즈 부문 동상을 수상하는 낭보를 전해왔다. 1957년부터 시작된 뉴욕페스티벌은 세계적인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50여 개국이 참가해 16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한편, 제53회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에서는 SBS의 7개 프로그램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SBS 8뉴스> '끝까지 판다-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 공권력 유착 관계' 연속 보도(김민표, 이병

희, 김지성, 김종원, 최고은, 강청완, 조창현)가 탐사저널리즘 부문 플래티늄상을 받았다. 3부작 드라마 <사의 찬미>(연출: 박수진, 극본: 조수진)는 TV스페셜 드라마 부문 플래티늄상을 받았으며, <녹두꽃>은 TV 미니시리즈 드라마 부문 금상을 받아 뉴욕페스티벌에 이어 2관왕을 기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버닝선 게이트, 그 본질을 묻다'(연출: 박경식)는 탐사저널리즘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TV 동물농장> '아기와 반려동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연출: 이승이)는 TV시리즈 어린이/가족 부문 금상을 받았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연출: 정우진, 이관원, 윤종호)은 엔터테인먼트 부문 은상을, <문명특급>(연출: 홍민지, 이은재)은 뉴미디어 웹시리즈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휴스턴페스티벌은 뉴욕, 반프 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최대의 TV 전문 페스티벌 중 하나로 레미상(Remi Awards)이라고 불린다.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BJC 보도상



심영구 배여운 안혜민 안준석 정혜경 이유민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방송기자클럽에서 수여하는 1분기 BJC 보도상을 수상했다. 마부작침은 국회의 부실한 예산 심사 실태를 심층 취재한 '2020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보도로 전문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마부작침은 앞서 같은 보도로 2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